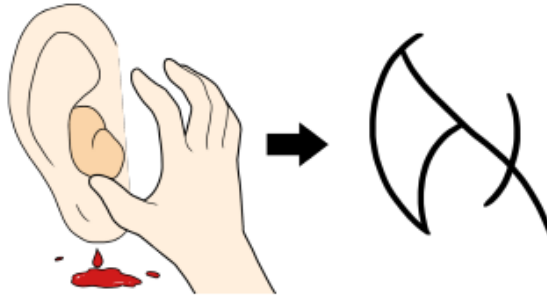


4(2)  
-  
211

회의문자①



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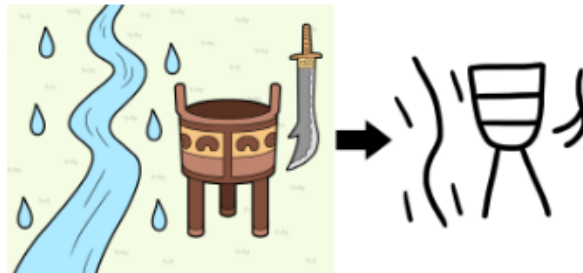
가질 취:

取자는 '얻다'나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取자는 耳(귀 이)자와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取자를 보면 손으로 귀를 잡은 모습이 그려져 있다. 取자는 먼 옛날 전쟁에서 유래한 글자이다. 옛날에는 전투를 치른 후에 내가 죽인 사람의 수만큼 포상을 받았다. 초기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의 머리를 잘라 바쳤지만, 후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 적의 왼쪽 귀를 잘랐다. 여기서 '가지다'라는 뜻의 取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取자는 손으로 귀를 잘라 '얻었다'라는 데서 유래한 글자인 것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인 12만 명의 코와 귀를 잘라 가져 가 만든 귀 무덤이 아직도 일본 교토시에 남아있다. 그 무덤의 이름을 耳塚(이총)이라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212

회의문자①



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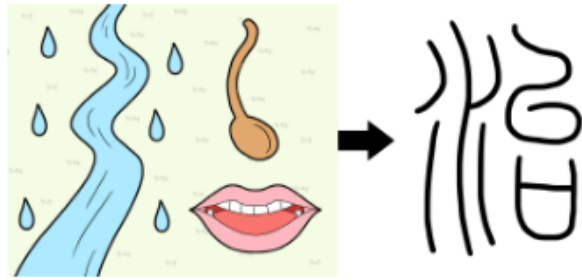
헤아릴 측

測자는 '헤아리다'나 '재다', '측량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測자는 水(물 수)자와 則(법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則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술에 글을 새긴다는 의미에서 '법칙'이나 '준칙'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법칙'이라는 뜻을 가진 則자에 水자를 더한 測자는 '법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 물의 양'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측정기(測程器)를 사용한다. 측정기에 측량되는 강수량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측정량이 표시되기 때문에 測자는 강수량을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측량하다'나 '헤아리다'나 '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4(2)  
-  
213

회의문자①



治

다스릴  
치

治자는 '다스리다'나 '질서가 잡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治자는 水(물 수)자와 台(별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台자는 수저를 입에 가져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台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먹이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농경사회에서는 강이나 하천의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治자는 물을 다스려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에서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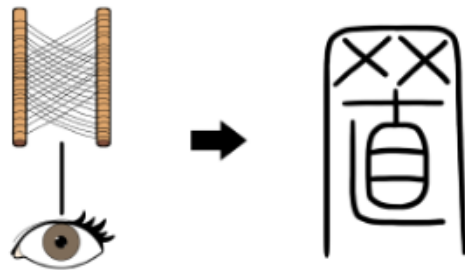
소전

治

해서

4(2)  
-  
214

형성문자①



置

둘[措]  
치:

置자는 '두다'나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置자는 网(그물 망)자와 直(곧을 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直자는 눈 주위에 획을 그려 넣은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置자는 본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는 묻지 않고 풀어준다 뜻이었다. 그래서 置자에 쓰인 网자는 '잡은 죄인을 놓아주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置자에 있는 '두다'나 '내버려 두다'라는 뜻도 사실은 사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금의 置자는 주로 '배치하다'나 '설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편이다.

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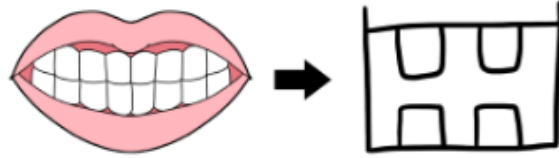
소전

置

해서

4(2)  
-  
215

상형문자①



齒

이 치

齒자는 '이빨'이나 '어금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齒자를 보면 크게 벌린 입과 이빨이 𪚩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止(발 지)자가 더해지면서 입이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했다. 齒자는 이렇게 이빨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지만 때로는 '나이'나 '순서'를 뜻하기도 한다. 이빨이 가지런히 나열된 모습이 '순서'를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𪚩

갑골문

𪚪

금문

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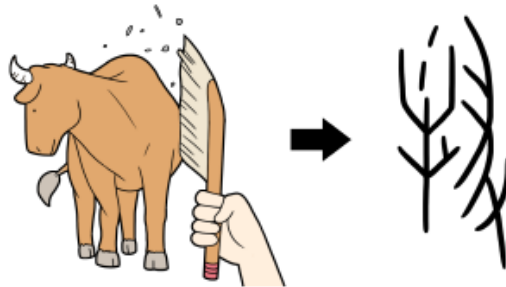
소전

齒

해서

4(2)  
-  
216

회의문자①



侵

침노할  
침

侵자는 '침범하다'나 '습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侵자는 人(사람 인)자와 帚(비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侵의 갑골문을 보면 人자가 아닌 牛(소 우)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발에 들어온 소를 빗자루로 쫓아내는 𪚭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牛자가 人자로 바뀌게 되면서 침입자를 내쫓는 𪚮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𪚭

갑골문

𪚮

금문

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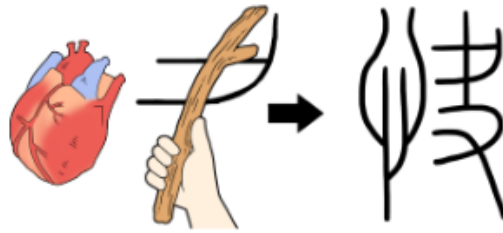
소전

侵

해서

4(2)  
-  
217

회의문자①



快

쾌할 쾌

快자는 '시원하다'나 '상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원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다. 快자는 心자와 夬(터놓을 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夬자는 활시위를 당겼다 놓는다는 뜻으로 '터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터놓다'라는 뜻을 가진 夬자에 心자가 결합한 快자는 '마음을 터놓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즉 마음이 즐거우하다는 뜻이다.

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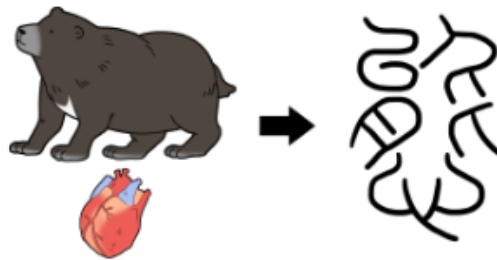
소전

快

해서

4(2)  
-  
218

회의문자①



態

모습 태:

態자는 '모습'이나 '형태', '상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態자는 能(능할 능)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能자 곰을 그린 것이다. 態자에서 말하는 '모습'이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위풍당당한 자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態자는 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응용한 글자로 능률한 자태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態자는 획이 복잡해서 간략하게는 忞(모습 태)자로 쓰기도 한다.

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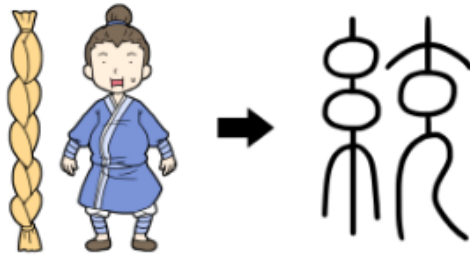
소전

態

해서

4(2)  
-  
219

형성문자①



統

거느릴  
통:

統자는 '거느리다'나 '계통', '실마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統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充(찰 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充자는 배가 부른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충→통'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統자는 본래 '실마리'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실마리'란 감겨있는 실타래의 첫머리를 말한다. 실타래의 시작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統자는 실의 꼬트머리라는 의미에서 '실마리'를 뜻했었다. 하지만 후에 실의 첫머리가 다른 실의 앞에 놓여있다 하여 '계통'이나 '거느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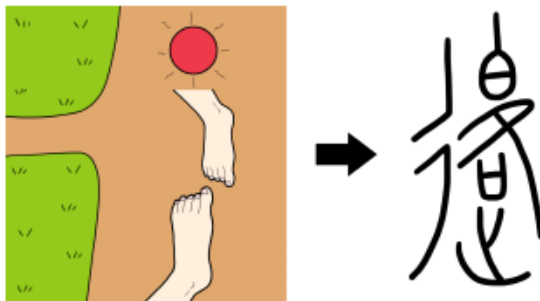
소전

統

해서

4(2)  
-  
220

회의문자①



退

물러날  
퇴:

退자는 '물러나다'나 '물리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退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艮(어긋날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艮자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退자의 금문을 보면 辵자와 日(해 일)자, 攴(뒤쳐서 올 치)자가 결합한 𨔵 형태였다. 여기서 日자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발을 서로 엇갈리게 그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다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래서 금문에서의 退자는 시간이 다 되어 되돌아간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해서에서는 글자가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退

금문

退

소전

退

해서